

우리나라 암환자가 이용하는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연구*

장순복**·이태화***·김소야자****·유일영****
김인숙****·강경화*****·이미경*****·장영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암은 질병과 관련된 전체 인구 사망자의 12.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약 40만명의 암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www.mohw.go.kr, 2003, www.ncc.re.kr, 2004).

암을 치료하는 주된 방법은 정통 서양의학의 접근인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면역요법 등이며, 최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조기발견 및 치료로 생존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고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암 발생의 고위험 요인을 규명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암 발생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완치율이 낮고 치료과정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암 환자와 가족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암 환자의 재발에 대한 공

포와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따르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생존기간의 연장과 완치 보장 등의 욕구로 인하여 암 환자는 정통 의료 체계와는 별도로 개인적인 건강 추구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는 보완대체요법으로 연결되어 암 환자의 상당수가 병의원 치료와 이를 병행하며 심지어 암 환자의 5%정도는 보완대체요법에 의존하기 위해 정통 의료를 떠나기도 하는 실정이다(Montbriand, 1994). 암 환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보완대체요법이나 민간요법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치료가 끝난 후의 재발을 방지하거나 회복을 위한 교육만 일부병원에서 실시하고, 보완대체요법 관련 내용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가 거의 없어 그 유익이나 부작용에 관한 교육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도 조사에서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은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보완대체요법에 사용된 비용도 연간 의료비 지출보다 많았다(Eisenberg, 1996). 또한 유럽각국에서는 20~49%가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Peter & Adam, 1994).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지원(0420180-1)에 의해 수행됨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간호정책연구소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간호학과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mosung@dju.ac.kr)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투고일 2005년 8월 1일 심사외뢰일 2005년 8월 2일 심사완료일 2006년 3월 7일

한편 국외의 암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그 분포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미국은 전체 암 환자의 50%, 캐나다에서는 49%가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였고, 독일은 44%, 영국은 42%, 노르웨이는 20%, 대만은 64%가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Fernandez, 1998; Tough, Johnston, Verhoef, Arthur, & Bryant, 2002).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수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Lee, Ahn, Hwang, Lee와 Koo(1998)는 50~70%가 대체보완요법을 이용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Yun 등(1998)은 말기 암 환자로 진단 받은 후에 28.7%의 환자가 이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연구비용의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의료 인력의 교육 등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바, 미국의 경우 1999년 NIH 산하에 국립 보완대체요법 센터(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CCAM)를 설립하고, 보완대체요법의 과학적 근거와 효과에 대한 연구지원, 의료인과 일반대중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거나 미국 전 지역의 보완대체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소 이견(異見)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는 한방이 대체의학에 속하는지에 대해 관점이 서양과는 다르게 해석되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한의학을 대체의학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특히 유럽의 경우는 보완대체 의학을 현대 의학의 절대적 대안이 아닌 병용하는 보완의 의미로 적용하고 있다(Groden, 1996).

1980년대부터 미국, 호주 등을 비롯한 구미 각국에서는 암 클리닉을 중심으로 하여 임상외와 암 연구가 등을 중심으로 암환자에 대한 보완대체요법의 종류, 사용정도, 사용자의 특성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Begbie, Keretes, & Bell, 1996)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료 종사자들의 반대, 무관심이나 효능에 대한 불신 등의 상황에서 제도권 의료 밖에서 환자들의 자의에 의해 음성적으로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음이 유추된다.

본 연구자들은 보완대체요법 이용의 바른 방향 정립을 위해 암 환자들은 과연 얼마나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과 관련된 제 특성은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보완대체요법이 주로 이용되는지, 어떠한 특성

의 환자들이 어떤 보완대체요법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암의 종류에 따라 이용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암 환자들의 보완대체요법 이용과 관련된 환자의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병원 내원 암환자에 대한 이해를 도와 환자와 의료진과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암환자의 포괄적인 치료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보완대체요법 이용의 바른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암 환자들의 보완대체요법 이용 요인과 환자의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이용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암 환자들의 보완대체요법 이용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3. 용어정의

보완대체요법이란 현대 정통 서양의학에 비해 과학적 평가가 부족하고 효능의 인지가 부족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개인적으로 암을 치유하거나 건강을 위하여 이용하는 방법이다(Fernandez, 1998). 본 연구에서는 병원에서 의료진에 의해 사용·승인되지 않았으나 질병의 치유와 건강증진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암 환자의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2년도 한국중앙 암 등록 본부에 등록된 140개 병원(기관) 중 진단 건수가 500건 이상인 54개 병원(진단건수: 89,562건, 전체 진단 건수의 87.2%)을 선택한 후 각 병원(기관)별 진단 건수의 비율

에 비례하여 표본수를 할당하였다. 이중 연구에 동의한 병원(기관) 28곳에서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암 환자 1,150명이다. 질문지는 최근 6개월간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관해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자료 불충분으로 인한 탈락율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기억에 의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3월 30일 까지였으며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언제든지 면담 도중이라도 그만 둘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1단계에서는 문헌고찰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국내외 선행연구 및 연구기관의 자료를 검토하여 설문지 구성 항목 및 내용을 선정하여 개발 한 후,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와 연구팀 회의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2단계는 전문가 타당도를 위해 자문회의를 거쳐 수정·보완 하였는데 자문단의 구성은 의학계 및 간호학계 전문가 5인, 보완대체요법 관련 학계 전문가 5인, 암 센터 소장 1인, 관계 공무원 한명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보완대체요법의 범주는 미국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NCCAM)의 기준과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심신조정요법, 한의사 처방요법, 한의사 처방 외 한방민간요법, 식이요법, 물요법, 수기신체치료요법, 약물요법,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NCCAM의 기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사전 조사 결과에서 그 사용빈도가 극히 드물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 후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보완대체요법을 8범주로 재분류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Win 11.5 program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이용은 빈도, 백분율, χ^2 -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을 보면, 남자가 45.5%이고 여자가 54.5%이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53.3세였다. 대도시 거주 56.7%, 고졸이상 39.7%, 경제 상태 중이 85.0%로 가장 많았다. 암의 종류별 분포는 유방암이 20.0%로 가장 많았으며 위암 15.6%, 간암 14.4%, 폐암 10.8%, 대장암 10.0%, 자궁암 10.0%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암이 19.0%였다.

2. 보완대체요법의 이용관련 요인

대상자들의 보완대체요법 이용관련 요인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75.0%가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적이 있었으며 주된 이용 목적으로 50.0%는 질병치료를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1.9%는

<Table 1> Factors of CAM** use (N=1,150)

Variables	Categories	N	%
CAM** using	yes	863	75.0
	no	287	25.0
Using purpose***	health promotion	238	20.7
	recover of vigor	252	21.9
	treatment of disease	575	50.0
	alleviation of side effects	71	6.2
	etc.	19	1.7
Beginning of CAM**	before health status	97	8.4
	other health problems	22	1.9
	early cancer stage	386	33.6
	recovery status	301	26.2
	after cancer recurrent	41	3.0
etc.	22	1.5	
Consultation of doctor	yes	286	24.9
	no	577	50.2
Discontinue reason	not discontinue	415	36.1
	not want	129	11.2
	high cost	117	10.2
	no expected effect	108	9.4
	doctor's opposite views	54	4.7
	side effects	45	3.9
	complete recovery	18	1.6
	family's opposite views	8	0.7
etc.	61	5.3	
Intention of further CAM** use	yes	869	75.6
	no	280	24.3

* Number excluded missing data

** CAM: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 Multiple response

III. 연구 결과

원기회복을 위해서였다. 질병의 초기 단계부터 이용한 경우가 3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회복기가 26.2%였다. 보완대체요법 이용과 관련해 50.2%는 의사와 상의 없이 이용하였으며 이용을 중단한 경우에 그 이유는 더 이상 원하지 않아서가 11.2%로 가장 많았다. 앞으로 필요시 보완대체요법을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75.6%로 사용자 대부분은 추후 재이용 의사를 밝혔다.

3. 보완대체요법별 이용분포

대상자의 보완대체요법별 이용분포는 <Table 2>와 같다.

전체 범주별 보완대체요법의 이용분포를 살펴보면, 복수응답으로 한 본 연구에서 식이요법의 이용이 153.2%로 나타나 거의 모든 암 환자들이 한두 가지 이상의 식이요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의사 처방 의 한방민간요법이 47.9%, 심신조정요법이 20.3%, 약물요법 19.6%, 한의사 처방 요법 15.7%, 기타요법 15.0%, 수기신체요법 6.8%, 그리고 물 요법 2.2%순으로 나타났다.

4.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이용분포

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보

<Table 2> Distribution of CAM**

(N=1,150)

Categories	f*	%	Categories	f*	%
Mind-Body Control	233	20.3	Diet	1,763	153.2
Prayer	141	12.3	Cereals	242	21.0
Buddhist Mass	28	2.4	Fruits	231	20.1
Exorcism, talisman	6	0.5	Vegetables	183	15.9
Spiritual treatment	3	0.3	Mushrooms	171	14.9
Meditation	12	1.0	Sang-Hwang mushrooms	242	21.0
Yoga	23	2.0	Agaricus	48	4.2
Danhak, Kigong	10	0.9	Fishes	100	8.7
Music, art, aroma therapy	10	0.9	Deers, Black goats	55	4.8
.....	Seaweeds	104	9.0
Prescription of OMD***	180	15.7	Maggots, earthworms, snails	13	1.1
Herb	61	5.3	Supplementary foods	127	11.0
Acupuncture	34	3.0	Fermented foods	168	14.6
Moxa	25	2.2	Nuts	71	6.2
Vacuum	17	1.5	Drinks	8	0.7
Massage	43	3.7
Total			Water		
.....	Germanium Water	25	2.2
Non-prescription of OMD***	536	47.9
Acupuncture	6	0.5	Hand manipulations	86	6.8
Hand acupuncture	5	0.4	Hot spring	38	3.3
Moxa	6	1.4	Stone heat	36	2.5
Vacuum	7	0.6	Chiropractic, massage	12	1.0
Ginseng	354	30.7
The young antlers of the deer	15	1.3	Medical Cure	226	19.6
Herb	89	7.7	Ringers	24	2.1
Animal	6	0.5	Miseltoes, timothin	24	2.1
Teas	40	3.5	Iron, Calcuim	43	3.7
Oils	8	1.3	Vitamins	135	11.7
.....
			Others	173	15.0
			Natural Therapy	9	0.8
			Exercise	136	11.8
			Magnet	28	2.4

* Multiple response, number excluded missing data. F is frequency.
 ** CAM: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 OMD: Oriental medical doctor

<Table 3> Distribution of CAM** according to general and disease characteristic (N=1,150)

Variables	Categories	Yes	No	$\chi^2(p)$
		N(%)	N(%)	
General characteristic				
Gender	male	368(42.8)	150(52.6)	8.280(0.005)
	female	491(57.2)	135(47.4)	
Age(year)	≤30	30(3.5)	9(3.2)	9.947(0.041)
	31-40	83(9.7)	34(11.9)	
	41-50	255(29.8)	60(21.1)	
	51-60	257(30.0)	87(30.5)	
	≥61	232(27.1)	95(33.3)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313(36.4)	119(41.8)	4.236(0.120)
	high school	341(39.7)	113(39.6)	
	≥college	205(23.9)	53(18.6)	
Economic status	high	14(1.6)	3(1.1)	2.046(0.360)
	middle	723(84.3)	249(87.7)	
	low	121(14.1)	32(11.3)	
Region of residence	big city	485(56.6)	164(57.7)	0.349(0.840)
	small city	273(32.1)	86(30.3)	
	town	97(11.3)	34(12.0)	
Disease characteristic				
Cancer type	lung ca.	97(11.3)	26(9.1)	61.810(0.000)
	liver ca.	102(11.9)	62(21.8)	
	colon ca.	92(10.7)	22(7.7)	
	stomach ca.	138(16.1)	41(14.4)	
	uterus ca.	97(11.3)	17(6.0)	
	breast ca	198(23.1)	32(11.2)	
	etc ca.	133(15.5)	85(29.8)	
Cancer treatment method	single method	262(30.5)	143(50.2)	36.223(0.000)
	combined method	597(69.5)	142(49.8)	
Current treatment type	OPD follow-up	172(20.0)	38(13.3)	20.274(0.000)
	regularly treatment	482(56.1)	199(69.8)	
	after recurrent-treatment	205(23.9)	47(16.5)	

* Number excluded missing data

** CAM: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완대체요법 이용 분포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경우가 여성이 57.2%, 남성이 42.8%로 여성의 이용정도가 많아 성별에 따라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5) 연령별로는 51-60세가 가장 많은 이용분포를 보여 연령별 보완대체요법 이용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41). 하지만 교육수준, 경제상태, 거주지역 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이용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질병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유방암이 23.1%로 가장 많이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여 암 종류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이용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0) 병원

에서 치료 받는 방법은 병행요법인 경우는 69.5%가 이용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0) 현재 치료 상태는 주기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가 56.1%로 많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이용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대상자의 진단별 보완대체요법 이용분포

대상자의 진단별 보완대체요법 이용분포는 <Table 4>와 같다.

폐암의 경우 식이요법을 폐암환자의 55.7%가 이용하여 가장 많은 이용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한의사 처

<Table 4> Distribution of CAM** according to cancer type (N=1,150)

Categories	Cancer (f* (%))							Sum
	lung	liver	colon	stomach	uterus	breast	etc	
Mind-Body Control	29(7.3)	29(6.0)	22(6.7)	38(8.6)	25(7.1)	49(7.3)	37(6.3)	229
Prescription of OMD***	25(6.3)	23(4.7)	36(10.9)	23(5.2)	14(4.0)	29(4.5)	30(5.1)	180
Non-prescription of OMD***	61(15.5)	91(18.8)	40(12.1)	76(17.3)	56(16.0)	112(17.5)	107(18.2)	543
Diet	219(55.7)	256(53.0)	178(54.2)	242(55.3)	201(57.7)	357(56.0)	310(52.9)	1,763
Water	3(0.7)	5(1.0)	2(0.6)	4(0.9)	4(1.1)	5(0.7)	2(0.3)	25
Hand manipulations	9(2.2)	14(2.8)	5(1.5)	10(2.2)	12(3.4)	13(2.0)	16(2.7)	79
Medical Cure	23(5.8)	40(8.2)	29(8.8)	27(6.1)	16(4.5)	43(6.7)	48(8.1)	226
Others	24(6.1)	25(5.1)	16(4.8)	17(3.8)	20(5.7)	34(5.3)	38(6.4)	174
Sum(100.0%)	393(100.0)	483(100.0)	328(100.0)	437(100.0)	348(100.0)	637(100.0)	586(100.0)	

* Multiple response, number excluded missing data, F is frequency.

** CAM: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 OMD: Oriental medical doctor

방 외 한방 민간요법 15.5%, 심신조절요법 7.3%, 한의사 처방 요법 6.3%, 순이었다.

간암의 경우 식이요법을 53.0%가 이용하여 가장 많은 이용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한의사 처방 외 한방 민간요법 18.8%, 약물 요법 8.2%, 심신조절 요법 6.0%, 기타요법 5.1% 순이었다.

대장암의 경우 식이요법을 반수 이상인 54.2%가 이용하여 가장 많은 이용분포를 보였으며 한의사 처방 외 한방 민간요법 12.1%, 한의사 처방 요법 10.9%, 약물 요법 8.8%, 그리고 심신조절 요법을 6.7%가 이용하였다.

위암의 경우 식이요법은 반수 이상인 55.3%가 이용하여 가장 많은 이용분포를 보였으며, 한의사 처방 외 한방 민간요법은 17.3%, 심신조절 요법 8.6%, 약물 요법 6.1%, 한의사 처방 요법 5.2% 순이었다.

자궁암의 경우 식이요법 이용이 57.7%로 다른 질병에 비해 이용률이 높은 편이었으며 다음으로 한의사 처방 외 한방 민간요법 16.0%, 심신조절 요법 7.1%, 기타요법 5.7%, 약물 요법 4.5% 순이었다.

유방암의 경우 식이요법은 반수 이상인 56.0%가 이용하였고, 한의사 처방 외 한방 민간요법 17.5%, 심신조절 요법 7.3%, 약물 요법 6.7%, 기타요법 5.3% 순이었다.

기타 암의 경우 다른 암과 보완대체요법의 이용 분포가 거의 비슷하였으며 식이요법이 52.9%로 가장 많은 이용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의 보완대체요법 8범주 중에서 모든 암의 종류에 있어서 식이요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완대체요법임을 알 수 있었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전국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실태와 암의 종류에 따른 이용 분포를 파악하여 암 환자의 치료방향 모색하고 보완대체요법 이용의 바른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 암 환자 분포의 우선순위는 유방암 20.0%, 위암 15.6%, 간암 14.4%, 폐암 10.8%, 대장암 10.0%, 자궁암 10.0%이었는데 Bae 등(2001)이 1999년 한국의 128개 병원으로부터 암환자 등록자료 94,003명에 근거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년 암 환자의 발생 분포가 위암 20.7%, 폐암 12.1%, 간암 12%, 대장암 9.9%, 유방암 6.4% 자궁암 5.0%라고 하였다. 본 연구와 6년의 시차가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구대상자들의 암 종류의 분포는 유방암의 분포 정도가 비교적 큰 집단이었는데 이는 자료 수집을 위한 병원표집 과정에서는 암 등록 본부에 등록된 각 병원별 암 진단 건수의 비율에 비례하여 각 병원당 표본수 할당이 가능했으나 대상자 표집과정에서는 암 환자의 질병별 분포에 따른 할당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보완대체요법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28개 병원으로부터 참여한 1,150명의 암 환자 중 과반수이상인 75.0%로서 이들은 보완대체요법을 병원치료와 함께 병행하고 있었다. 중국의 Yong 등(2004)은 상하이의 유방암 환자 1,065명 중 98.0%가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대상자들보다 높은 이용율을 보였으나,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암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율을 조사한

Park과 Lee(2000)의 52.6%, Choi(1998)의 63.0% 등과 중년여성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율을 조사한 Park, Cho, Kim과 Lee(2005)의 63.5% 보다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높은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율을 보였다.

보완대체요법의 이용목적은 대상자의 50.0%는 질병치료였고, 다음으로 원기회복(21.9%)과 건강증진(20.7%)이었으며 질병의 초기부터 사용한 경우가 33.6%였다. 보완대체요법의 이용목적은 Park 등(2005)의 연구에서는 41.4%가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서였고 Shin, Park과 Shin(2004)의 연구에서도 질병의 완치를 위해서가 가장 많아 본 연구 대상자들의 보완대체요법의 주된 이용목적과 비슷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과반수인 50.2%는 의사와 상의 없이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였고 중단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36.1%였다. 이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대상자들의 요구가 계속 증대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의료체계 내에서의 영역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 의료진의 지도와 감시 없이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정성과 효과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의료의 현실임을 고려해 볼 때 보완대체요법과 정통 의료를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향후 이용의사는 75.6%가 재사용 의사를 보여 보완대체요법 이용 경험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는 Lee와 Park(1999)이 사용자의 74.3%가 만족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보완대체요법 이용분포를 범주별로 보면, 복수응답으로 한 본 연구대상은 식이요법의 이용이 153.2%로 나타나 거의 모든 암 환자들이 한두 가지 이상의 식이요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한의사 처방 외 한방민간요법이 47.9%, 심신조정요법이 20.3%, 약물요법 19.6%, 한의사 처방 요법 15.7%, 기타요법 15.0%, 수기신체요법 6.8%, 물 요법 2.2% 순으로 나타났다. Choi(1998)는 신체정신치료 9.6%, 한방 12.3%, 약물요법 6.8%, 약초요법 44.8%, 식이영양요법이 52.3%였다는 보고하였으며 Park(2005)등은 수치료 41.9%, 식이요법 27.8%, 심신치료가 12.5%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서로 다른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분류범주가 각 연구마다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보완대체요법으로 식이요법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병의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현재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음으로 인해 의사의 처방에 의한 치료

보다는 식이요법, 한의사 처방 외 한방민간요법, 심신조정요법 등과 같이 의사의 처방과 무관한 요법들을 선택함으로써 암의 완치나 원기회복, 건강증진이 보완대체요법의 주 사용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병원 치료의 보조수단으로서 보완대체요법이 상용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암 환자들이 이용한 보완대체요법을 종류별로 보면 2,055명을 대상으로 한 Eisenberg 등(1998)은 카이로프랙틱 30.5%, 마사지 18.1%, 이완요법 16.4%, 에너지요법 6.4%로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실태를 보고하였고, Lafferty 등(2004)은 미국 Washington주의 환자 346,428 명중에서 11.9%가 카이로프랙틱을, 1.7%가 침을 이용하였다고 하였다. Yong 등(2004)은 한약이 86.7%, 보양식이 84.8%, 운동이 65.5%, 침 이용이 4.9%라고 보고하였다.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Park 등(2005)은 건강식품, 부항, 지압, 수지침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하였고 Shin 등(2004)은 침, 물리치료, 뜸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삼류 30.7%, 잡곡생식 21.0%, 상황버섯 21.0% 등이 높은 이용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이들 요법들의 이용률이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연구에 비해 이용 빈도가 낮은 것은 본 연구 대상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보완대체요법 종류가 48종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조사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국외의 선행연구들은 카이로프랙틱, 침, 한약 등과 같이 전문 의료인에 의해 시술되거나 처방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반해 본 연구의 경우는 보완대체요법이 의료인의 처방과 상관없이 민간요법의 차원에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암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를 대상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자가 57.2%로서 남자 42.8%보다 보완대체요법을 많이 이용하였다.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군은 51-60세(30.0%), 고졸(39.7%), 경제수준 중(84.3%), 대도시(56.6%)로 나타났다. 이는 308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Choi(1998)가 고졸이상(58.1%)과 중소도시 거주자의 이용률(58.2%)이 높았다는 보고와 36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Chun(1998)이 50대(44.4%), 고졸이상(63.9%)의 경우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이 높았다는 보고와 비슷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의 이용률은 농촌보다는 중소도시 이상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수준이 중

류층 이상이고 고졸이상의 학력에서 주로 많이 이용함을 알 수 있었다.

질환별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은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 23.1%, 위암 16.1%, 간암 11.9%순으로 나타나 암의 종류에 따라 보완대체요법 이용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Choi(1998)의 연구에서는 간암 75.0%, 폐암 73.2%, 유방암 70.8%, 위암 55.8%, 자궁암 52.5%로 간암환자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Lee 등(2002)의 연구에서는 위암 75.6%, 간암과 유방암이 각각 71.1%와 60.3%, 대장암 56.6%, 자궁암 42.7%로 위암환자의 이용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여 연구자마다 질병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이용의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중 유방암이 20.0%로 가장 많이 분포함으로 인해 유방암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유추된다.

대상자의 진단별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를 보면 모든 암의 종류에 있어서 식이요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완대체요법임을 알 수 있었고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는 요법으로는 한의사 처방 외 한방 민간요법이었다. 암의 종류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Choi(1998)가 암 종류에 따른 대체요법 사용률이 모든 암에서 식이요법이 가장 이용률이 높았고 그 다음이 약초요법이었다고 보고 한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암 환자의 보완대체요법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고 무지한 계층에서 현대의료의 접근성이 낮음으로 인해 행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암치료의 어려움과 부작용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고학력층에서 많이 행해지고 특정 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보편적으로 보완대체요법을 많이 이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건강관리 체계에서 보다 효율적인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암 환자의 보완대체요법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도구는 국내외 선행연구 및 연구기관의 자료를 검토하여 설문지 구성 항목 및 내용을 선정하여 개발하였으며 보완대체요법의 범주는 미국 NCCAM의 기준과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재분류하여 심신조정요법, 한의사 처방요법, 한의사 처방 외 한방민간요법, 식이요법, 물요법, 수기신체치료요법, 약물요법,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 1,150명 중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는 75.0%였으며 이용 목적은 질병치료를 위해서라는 대답이 50.0%로 가장 많았다. 보완대체요법을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75.6%로 사용자 대부분은 추후 재이용 의사를 밝혔다. 전체 범주별 보완대체요법의 이용분포는 복수응답으로 한 본 연구에서 식이영양식품의 이용이 153.2%로 나타나 거의 모든 암 환자들이 한두 가지 이상의 식이영양식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의사 처방 외 한방민간요법이 47.9%, 심신조정요법이 20.3%, 약물요법 19.6%, 한의사 처방 요법 15.7%, 기타요법 15.0%, 수기신체요법 6.8%, 물요법 2.2%순으로 나타났다.

특성별 보완대체요법 이용 분포는 성별과 연령별 보완대체요법 이용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교육 수준, 경제상태, 거주지역 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이용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암 종류, 병원에서 치료 받는 방법, 현재 치료 상태에 따라 보완대체요법 이용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암의 종류별 보완대체요법 이용은 본 연구의 모든 암에 있어서 식이요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한의사 처방 외 한방 민간요법, 심신조정요법, 약물요법 순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암 환자들의 보완대체요법 관련 이용률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그들의 대다수가 향후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설명되어 특히 가장 많은 대상자가 사용하는 보완대체요법의 타당성 검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의료인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대한 올바른 지도에 대한 방향 정립을 위해 암의 종류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의 기대효과와 체험효과를 분석하여 가장 만족도가 높은 보완대체요법을 밝히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ae, J. M., Won, Y. J., Jung, K. W., Suh, K. A., Ahn, D. H., & Park, J. G. (2001).

- Annual report of the central cancer registry in Korea-1999: based on registered data from 128 hospitals. *Cancer Res Treat*, 33(5), 367-372.
- Begbie, S. D., Keretes, Z. L., & Bell, D. R. (1996). Patterns of alternative medicine use by cancer patients. *MJA*, 165, 545-548.
- Choi, Y. J. (1998). *A study on complementary treatments of cancer patients in a hospital*.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University of Korea, Seoul.
- Chun, H. S. (1998).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therapies used by cancer pati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Eisenberg, D. (1996). Alternative medical therapies for rheumatologic disorder. *Arthritis Care and Research*, 9(1), 1-4.
- Eisenberg, D., Davis, R. B., Ettner, S. L., Appel, S., Wilkey, S., Rompay, M. V., & Kessler, R. C. (1998). Trends in alternative medicine use in the United States 1990-1997: Results of a follow-up national survey. *JAMA*, 280(18), 1569-1575.
- Fernandez, C. N. (1998).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therapy in British Columbia: Prevalence and reason for use and noneuse. *J Clin Onto*. 16(4), 1279-1286.
- Groden, J. S. (1996). Alternative medicine and the family physician. *American family physician*. 54(7), 2205-2212.
- Lafferty, W. E., Bellas, A., Baden, A. C., Tyree, P. T., Standish, L. J., & Patterson, R. (2004). The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al providers by insured cancer patients in Washington state, *Cancer*, 100, 1522-1530.
- Lee, K. S., Ahn, H. S., Hwang, L. I., Lee, Y. S., & Koo, B. H. (1998). Utilization of alternative therapies in cancer patients. *J Korean Cancer Assoc*, 30(2), 203-213.
- Lee, Y. J., & Park, H. S. (1999). A study on use of alternative therapy in chronic patients. *J Korean Fund Nurs*, 6(1), 96-113.
- Montbriand, M. J. (1994). An overview of alternate therapies chosen by patients with cancer. *Oncology Nurs Forum*, 21(9), 1547-1554.
- Park, H. S., & Lee, Y. M. (2000). A study on use of alternative therapy in cancer patients. *Korea J Rehab Nurs*. 3(2), 212-227.
- Park, H. S. Cho, G. Y., Kim, M. O., & Lee, S. R. (2005). A study on use of complementary - alternative therapy in middle-aged women. *Korea J Women Health Nurs*, 11(3), 193-201.
- Peter, F., & Adam, W. (1994). Complementary medicine in Europe. *BMI*, 309, 86-89.
- Shin, K. R., Park, S. Y., & Shin, S. J. (2004). A study on the use patterns of alternative therapy in the elderly. *J Korean Acad Adult Nurs*, 16(1), 111-122.
- Tough, S. C., Johnston, D. W., Verhoef, M. J., Arthur, K., & Bryant, H. (2002).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use among colon cancer patient in Alberta, Canada., *Altern Ther Health Med*. 8(2), 54-64.
- Yong Cui, Xiao-Ou Shu, Yutang Gao, Wanqing Wen, Zhi-Xian Ruan, Fan Jin, & Wei Zheng (2004).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by Chinese women with breast cancer, *Breast Cancer Res Treat*, 85, 263-270.
- Yun Y. H., Heo, D. S., Jeon, H. Y., Yoo, T. W., Kim, Y. Y., & Huh, B. Y. (1998). Behavior patterns of health care utilization in terminal cancer patients. *J Korean Acad Fam Med*. 19(6), 445-451.
- www.mohw.go.kr. 2003.
- www.ncc.re.kr. 2004.

- Abstract -

A Study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used by Cancer Patients in Korea*

*Chang, Soon-Bok**Lee, Tae-Wha****

*Kim, Soyaja****Yoo, Il-Young*****

*Kim, In-Sook*****Kang, Kyeong-Hwa******

*Lee, Mi-Kyeong*****Jang, Young-He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s (CAM) used among cancer patients in Korea.

Method: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Study participants were 1,150 cancer patients selected from 28 representative hospital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between December 1,

2004 and March 30, 2005. **Results:** Their diagnosis were as follows : 20.0% for breast cancer, 15.6% for stomach cancer, 14.4% for liver cancer, 10.8% for lung cancer, 10.0% for colon cancer, and 10.0% for uterine cancer. 75.0% of cancer patients had used CAM. The most popular categories of CAM use were diet with 153.2%, non-prescription of oriental medical doctor 47.9% and mind-body control 20.3%. CAM use gender, age, cancer type, cancer treatment method, and current treatment typ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Conclusion:** CAM use among cancer patients in Korea was very popular(75.0%) and so systemic guidelines of CAM use are needed.

Key words : Cance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CAM)

* Funded by MOHW (No. 0420180-1)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Korea; Nursing Policy Research Institute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Korea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Korea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Korea

***** Full-time Lecturer, Dep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Korea

*****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